

美·中 무역분쟁

초격차 전략

멀티카메라 시대

“내년 반도체 산업 희망은 있다”

세계 업계, 1000억 달러 설비투자 스마트폰 성장세 꺾여 ‘업황 우려’

美·中 무역분쟁 ‘호재’ 될 수도 ‘멀티 카메라’에 업계 호황 바람

사실상 올해 우리나라 경제를 이끌어 온 반도체 산업의 내년 업종전망을 둘러싸고 다양한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예상은 두갈래다. 초호황을 끝내고 하락세로 전환할 것이라는 비관과, 수요 증가로 실적 고공행진을 이어갈 것이라는 낙관이다. 반도체가 부품 업종인 만큼 내년 세트업황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정점은 끝났다

대체로 업계는 비관론에 더 힘을 실는 모양새다. 최근 초호황이 공급 부족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이었다는 분석 때문이다.

2일 IHS마킷에 따르면 반도체 공급은 올 4분기 수요보다 많아질 예정이다. 수요 대비 공급 비율이 D램 0.91, 낸드플래시 0.96으로 예상된다. 공급이 수요보다 D램 9%, 낸드 4% 많다 의미다.

실제로 디램익스체인지에 따르면 DDR 8GB 가격은 2일 기준 7달러선을 아슬아슬하게 유지하고 있다. 지난달 평균 고정거래가격은 7.19달러로, 2달전인 9월 8.31달러보다 15% 가량 급락했다. 낸드 가격도 몇달째 하락을 이어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수출에도 노란불이 켜졌다. 최근 산업통상자원부는 11월 반도체 수출액이 106억8000만달러라고 밝혔다. 전년과 비



삼성전자가 추진 중인 전장사업. 이미지센서가 차량 전반에 도입된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내년 낸드를 주로 생산하는 청주 M15 공장 가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SK하이닉스



전문가들은 내년 스마트폰이 멀티카메라를 확대하면서 반도체 시장 새로운 동력을 만들어 줄 것으로 보고 있다. 사진은 펜타카메라를 장착한 LG V40 씽큐. /LG전자

교하면 11.6% 증가했지만, 올해 누적 수출증가율(34%)과 비교하면 30% 미만으로 줄었다

‘공급 과잉’은 한동안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글로벌 업계가 최근 막대한 설비 투자를 단행한 까닭이다. IC인사이드는 올해 글로벌 반도체 업계 설비 투자액이 역대 최초로 1000억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삼성전자 평택공장(SK하이닉스 청주공장(M15))이 내년 가동을 앞두고 있다.

주요 고객인 스마트폰 업계도 성장세가 꺾인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스마트폰 등 세트 업계는 대체로 1년 계획을 미리 잡는다. 반도체 시장을 미리 내다볼 수 있는 셈”이라며 “정확하지는 않지만, 내년 업황이 우려되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지나친 위기론 경계도

그러나 최근 들어서는 시장을 지나치게

부정적으로만 보고 있다는 비관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계속 성장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어느 정도 현상 유지는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한화투자증권 이순학 연구원은 내년 SK하이닉스 영업이익을 22조원 수준으로 내다봤다. 올해보다 불과 2% 떨어진 것이다. 낸드 부문이 수출 상승과 원가절감 등에 성공하면서 올해보다 25% 낮은 영업이익을 기록하고, D램 부문에서는 오히려 성장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삼성전자는 내년 이보다 큰 폭으로 하락세를 겪을 수 있겠지만, 오히려 하반기에는 재반등에 무게가 실린다. 신영증권 이원식 연구원은 삼성전자 내년 영업이익을 올해보다 15% 낮은 54조원으로 예상하면서도, 상반기 가격 안정과 하반기 수요 증가로 실적을 개선할 여지가 높다고 분석했다.

미·중간 무역 분쟁이 뜻하지 않은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 중국 반도체가 미국 측 제재로 성장 동력을 잃게 되면서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낸드부문에서는 아직 가능성이 있지만, D램 부문에서는 시장 진입이 사실상 어렵게 됐다고 보고 있다.

‘초격차’ 전략도 주효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내년께 D램에 102나노 공정을 도입할 예정이다. 낸드도 128단 출시를 앞두고 있다. 삼성전자는 최근 셀1개에 비트4개를 집어넣는 QLC SSD 시장에도 뛰어 들었다. 높은 수율로 원가를 절감하면서, 가격 하락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전략이다.

새로운 시장 개척 기대도 높다. 파운드리가 대표적이다. 삼성전자는 당장 올해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을 2배 늘린 12%를 기록하면서 대만 TSMC에 이은 2위로 올라설 전망이다. 내년에는 7나노 E

UV 공정을 완성하면서 경쟁력을 더욱 높일 예정이다. SK하이닉스도 분사한 SK하이닉스시스템IC가 3분기 순이익 514억원을 기록 중이다.

‘멀티 카메라’ 시대도 반도체 업계에 훈훈한 바람을 불어오고 있다. 내년 스마트폰 시장에 ‘펜타 카메라’가 보급될 예정, 자동차도 자율주행 기능을 확대하면서 이미지센서 탑재량을 크게 늘리고 있다. 삼성전자는 최근 이미지센서 개발을 가속화하면서 점유율 2위까지 올라선 상태다. SK하이닉스도 자회사를 통해 CMOS 이미지센서 개발에 힘을 집중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업계 관계자는 “중국 굴기가 무너진 것은 분명한 호재”라며 “다양한 시장 개척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다만 시장에 변수가 많은 만큼,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김재용 기자 juk@metroseoul.co.kr

美 금리인상 예측 어려워... 불확실성 고조

》1면 ‘금리인상, 소비·투자...’서 계속

미국이 기준금리 인상 속도 조절에 나선 것도 한은의 통화정책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제롬 파월 미국 연준 지난달 28일 뉴욕의 한 연설에서 “현재 미국의 금리가 경제를 과열시키지도, 둔화시키지도 않는 중립적인 수준으로 추정되는 폭넓은 범위의 바로 밑에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미 연준은 금리를 빠르게 올려왔는데 인상 속도를 늦출 것이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한은은 당분간 추가 금리 인상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이 기준금리 인상 속도를 늦추면 한은의 금리인상 부담도 덜

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미 연준의 다음 금리인상 시기를 예측하기 어려워지면서 불확실성이 고조됐다.

만약 미 연준이 오는 18~19일 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정책금리를 연 2.25~2.50%로 0.25%포인트 올릴 경우 한·미 금리 연적차는 다시 0.75%포인트(상단 기준)로 벌어진다.

공동라 대신증권 연구원은 “다른 국가에 비해 경기 여건이 탄탄한 미국도 금리인상에 대한 속도 조절론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경기 둔화 우려가 높은 한국이 추가로 금리를 올릴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밝혔다.

/김희주 기자 hj89@

내년 3월엔 5G 스마트폰 출시 될 듯

》1면 ‘5G시대 열렸다...’서 계속

개인 고객은 5G용 스마트폰 단말이 출시되는 내년 3월께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1일 5G 1호 고객사인 안산 반월공단의 명화공업은 ‘5G-AI 머신 비전’ 솔루션을 가동했다. 이 솔루션은 자동차 부품이 컨베이어 벨트를 지나가는 동안 1200만 화소 카메라로 사진 24장을 찍어 5G를 통해 클라우드 서버로 전송한다. 서버의 고성능 인공지능(AI)은 사진을 판독해 제품에 결함이 있는지 확인했다. SK텔레콤 5G자율주행차는 경기 화성 자율주행실증도시 ‘K-City’와 시흥 일반도로에서 테스트 운행을 시작했다. KT의 5G 1호 가입자는 AI 로봇 ‘로터’

다. 단순한 이동통신 세대의 교체가 아닌 생활과 산업 전반을 혁신하는 플랫폼이 될 것이라는 의미를 담았다. KT는 이번 1호 머신 가입자를 시작으로 하여 2호, 3호의 머신 및 기업 간 거래(B2B) 파일럿 가입자로 영역을 확장해 나갈 예정이다. 5G MH S(모바일 핫스팟) 단말은 전용 요금제인 4만9500원에 10GB를 제공한다.

LG유플러스 5G 서비스 국내 1호 고객은 경기도 안양시에 위치한 LS엠트론이다. LS엠트론은 LG유플러스와 함께 ‘5G 원격 제어 트랙터’를 국내 최초로 개발했다. 리자는 마치 실제 트랙터 조종석에 앉아서 운전하는 것처럼 트랙터를 원격 조종하며 관제 센터 모니터에서 작업현황을 영상으로 실시간 확인할 수 있다. /김나인 기자 silkni@

“최저임금 인상은 가야 할 방향”

홍남기 경제부총리

“인상 속도에 대한 우려, 고려하고 업계별 차등적용, 연구·검토 필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달 12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로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 “저임금 근로자 생활안정, 양극화 해소 등을 위해 최저임금 인상은 가야 할 방향”이라며 “다만, 시장에서 제기되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속도에 대한 우려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올해 취업자 증가폭 둔화에 대해서는 생산가능인구 등 구조 요인, 구조조정 등 경기요인 및 일부 정책요인에 복합 기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 후보자는 2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서에 이같이 답변하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도소매·숙박음식점업 등 최저임금 민감업종에서 고용이 영향을 받는 모습을 보였다고 밝혔다.

홍 후보자는 최저임금액 적용유예와 관련해서는 “최저임금은 법률에 효력 발생 시기가 다음연도 1월 1일로 명시돼 있어 적용유예가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또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업종별 차등은 근거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 위원회에서도 매년 부결됐다”면서 “최저임금 차등 적용은 타당성, 실현 가능

성 등에 대해 좀 더 깊이 있는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홍 후보자는 소득주도성장 정책과 관련해서는 “소득분배 왜곡, 양극화, 계층이동 단절 등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계속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다만, 시장에서 애로를 제기하는 일부 정책에 대해서는 시장과의 소통, 면밀한 분석을 통해 보완해나갈 필요도 있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고용 상황 악화의 원인에 대해서는 “생산가능인구 등 구조 요인, 구조조정 등 경기요인 및 일부 정책요인에 복합 기인하고 있다”며 정책요인

에 관해서는 “좋은 의도의 정책도 속도, 어려운 경제여건 등과 맞물려 단기적으로 일부 취약계층 고용에 부분적으로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홍 후보자는 “노동수요·공급·노동시장구조 측면의 종합적 접근을 통해 민간의 일자리 창출 능력을 제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고용상황 개선을 위한 방향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규제개혁을 통한 민간 투자활성화, 혁신성장 가속화, 혁신인재 양성, 수요에 맞는 직업 훈련, 미스매치 해소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홍 후보자는 “민간부문의 일자리 수요 창출·확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고용상황 개선을 위한 공공부문 역할이 “민간이 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한 투자 등 마중물 역할”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4차 산업혁명 등 산업구조·고용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민간 활력 제고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동시장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며 노동시장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함께 밝혔다.

이를 위해 노동시장의 안정성을 개선하는 노력이 먼저 필요하다고 전제한 후 “고용 안정성을 토대로 사회적 논의 등을 통해 노동시장의 역동성도 높여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세종=최신용 기자 grandtrust@